

위니아대우 해외 이전...“광주에 남아달라”

경영악화 이유 세탁기 생산라인 내년 3월까지 태국으로 이용섭 시장, 사업장 찾아 재고 요청 “최대한 지원하겠다”

광주 삼성전자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에 이어 광주지역 핵심 가전업체인 (주)위니아대우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 대해 광주시가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생산라인 해외 이전에 이어 광주지역 핵심 가전업체인 (주)위니아대우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 대해 광주시가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위니아대우는 광주공장 내 세탁기 생산라인 3개를 내년 3월까지 태국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위니

아대우 측은 광주공장의 높은 생산 원가 때문에 세탁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영상황을 이유로 들었으며, 태국 내 공장 부지도 확보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광주공장 내 전체 생산직 320명 중 세탁기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80여 명이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라인으로 전환 배치된다. 하지만, 노조는 일방적인 라인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의 이날 위니아대우 광주방문은

생산라인 해외이전에 따른 노사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회사 측으로부터 생산라인 이전 계획을 듣고 “생존을 위한 회사 측의 방침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경제와 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생산 라인을 옮기는 것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일부 생산라인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보장에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역 가전산업은 삼성전자 생산라인 일부의 해외 이전으로 지역 가전산업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프리미엄

제품 강화와 위니아대우 생산라인 유지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광주 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위니아대우 일부 사업 해외 이전에 현실화하면 협력업체 피해 대책을 구성하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가전 협력 업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니아대우는 1987년 대우모터공업으로 광주 하남공단에 입주해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변경되고 2013년 동부그룹, 지난해 대우그룹에 인수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국내 초미세먼지 32%는 중국 영향

한중일 첫 공동연구, 국내 요인은 51% 구체적 대책 없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 영향이라는 한국·중국·일본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초의 과학적 발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을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측의 이견에 따라 발간이 연기됐다. 2000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를 처음 공동으로 시작한 뒤 그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기 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 3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의 국내의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비롯된 요인(자

체 기여율)이 51%, 국외 요인이 4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체 기여율은 한중일 3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 요인을 살펴보면 중국발 32%, 일본발 2%였고 나머지는 북한, 몽골, 동남아시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베이징, 톈진, 상하이, 칭다오, 선양, 다롄)의 초미세먼지 가운데 중국 자체적으로 발생한 먼지는 91%였다. 한국발은 2%, 일본발은 1%에 불과했다.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초미세먼지 55%는 일본에서, 25%는 중국, 8%는 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발 요인을 30%대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동북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28일 스크린서 만난다

서거 10주년 특별기획영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특별 기획영화인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시사회가 2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영화는 명랑문화재단이 제작했으며 오는 28일 전국 150개관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5번의 죽음을 고비, 55차례의 가택연금, 6년의 감옥생활, 777일의 망명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대한민국 제 15대 대통령이 돼 이 땅의 민주주의의 초석과 평화의 시작을 일군 ‘국민 대통령’ 김대중의 인생역정을 담은 작품이다.

타고난 연설가로 주목받은 1964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5시간 19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일명 필리버스터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장충단공원 유세 장면도 오롯이 담겨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사후를 토하는 그의 연설 장면은 ‘청년 김대중’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회자되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고 사발에 수의를 입은 모습, 강제 출국 당한 후 대한민국의 민주회복운동을 펼치는 장면,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도 만나볼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농정들 전환을 위한 2019년 전국순회 타운홀미팅 전남이 20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전남농정혁신위원회 인기관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특위, 전남도청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모색

9개 도 공동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고령화·가계불안정 등 논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 등 전남 농어촌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전남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농정들 전환을 위한 2019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전남’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박진도 농특위 위원장, 안기완 전남도농정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농어업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여했다.

원형테이블에 모여 앉은 도민들은 3시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전남도 지역의 농어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숙의하

고 행복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해서 농정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농어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테이블별 토론을 통해 제시된 30여개의 제안 의제를 추진할 주제를 행정·민간·공동으로 분류한 뒤 참석자 전원에게 현장에서 전자투표기로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박진도 위원장과 참석자들 사이에 진행될 정책대화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농어업 정책이 농어민과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특위와 전국 9개 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정들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특위는 각 지역에서 모인 국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인 ‘농정비전’을 작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노력”

박양우 장관-유네스코 총장 파리서 양자회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새로운 평화의 장소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비무장지대(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한이 공동 등재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문화장관회의가 열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가진 아줄레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DMZ가 남북 공동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유네스코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줄레 총장은 이에 “과거 씨름을 세계유

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할 때 유네스코가 중요한 역할을 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DMZ가 분단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의 갯벌과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과 유네스코의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영광 한빛원전 인근 광주 농산물 방사능 불검출 ‘안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인접한 광주 지역 농산물이 방사능에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산구 평동, 삼거리, 임곡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방사능 오염 여부 확인 지표인 요오드(I)-131, 세슘(Cs)-134, 세슘(Cs)-137 등 3개 항목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배추, 무 등 20건이었다.

한빛원전 원자로 격납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뒤 지난 8월 중순 시행한 모니터링에서도 안전이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도매시장, 학교급식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국내산 324건, 수입산 32건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출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적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원도읍방석리 전방 좋은 자연녹지산 3306㎡ 휴양시설 등 적합 1억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9㎡,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북구 두암동 버스도로점 2층 주거지 950㎡ 건물 신축 좋은 19억
- 서구 마복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은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구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물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33억
- 나주시 다시면 광막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8억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터) 부근 매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원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 건물

- 완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시작 적합 15억천
- 완암동 아파트 상가용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매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빌 318㎡ 건평 5동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구례군 구례읍 서천면(평의면) 11050㎡ 대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월산동 상업지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 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노방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 | | | |
|-----|---------------|---------------|---------------|
|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 | ·신 안 222-8171 | ·안 산 571-7658 | ·오 지 266-7601 |
|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 |
| 동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 |
| 남구 | ·남 부 652-0175 | ·백 은 651-1833 | ·봉 선 675-5530 |
|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 |
|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 | ·화 정 369-1625 | | |
|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 |